

하이델베르그 렌티큘러 프리프레스 패키지

특수효과 원하는 고객 지원

렌티큘러 인쇄에서 어려움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달려 있다. 시트를 구성하는 수백의 렌즈는 관찰자의 보는 각도에 따라 인쇄판의 그래픽 데이터를 반영한다. 즉, 보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보여짐에 따라 독특한 효과를 주고 흥미롭게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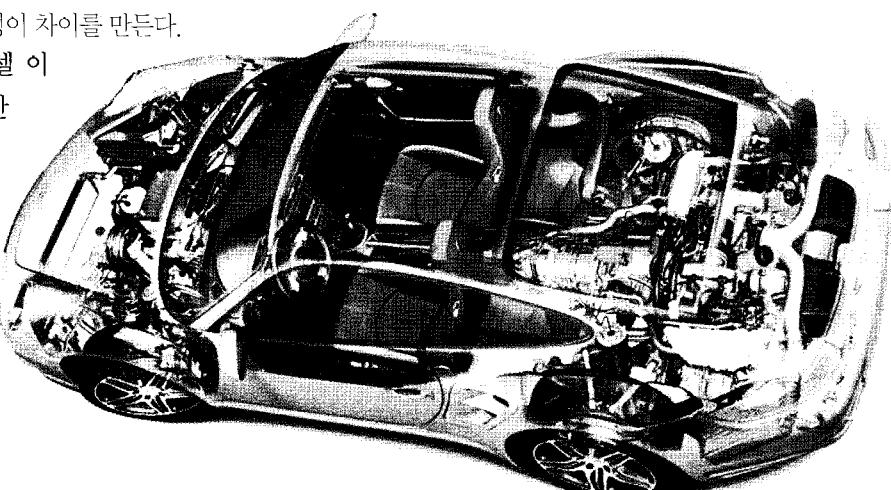
에러를 피하기 위해 인쇄와 렌즈 스크린이 맞춰져야 하며 인쇄판이 정확하게 맞춰서 인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아래가 나타나거나 두 이미지들이 동시에 보이게 될 수 있다. 프리프레스 패키지는 스크린과 이미징, 이 두 가지 중요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버튼을 눌러 진짜 렌즈 같은 스크린 디자인에 따라 모아래를 없애는 것은 표준 인쇄물에서도 힘겨운 작업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리고 렌티큘러 인쇄에서 프리프레스는 더욱 까다롭다. 원단 시트는 인쇄실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고 생산된 것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셀을 막대 모양의 렌즈와 일치시키는 것은 말하는 것 만큼 쉽지 않다. 따라서 원단 시트는 설정된 74 선수의 렌즈가 아니라 74.89 렌즈의 선수만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쇄인들은 맞춰질 때까지 각도를 계속 조정하곤 해 왔다. 프리넥 스크리닝 에디터(Prinect Screening Editor)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사용하게 될 필름을 정해주기만 하면 된다.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이상적인 선수와 각도로 필름에 맞는 스크린을 만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 프리넥 스크리닝 에디터는 렌즈의 수와 필름의 ‘pitch’로 알려진 그 거리를 측정한다. 만들어진 스크린 공식은 0.01 인치까지 정확하다. 이 정확성이 차이를 만든다.

자동의 정확한 피셀 이
미징렌즈간 다른 공간
은 각 렌즈 하에 레
이저 포인트의 수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징 프
로세스를 또한 손
상시킨다.

하나의 렌즈 아래 34픽셀이 있으며 다음 것에는 33개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상도가 정확한 숫자의 픽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전체 필름에 걸쳐 일어날 경우 더욱 더 나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3차원성이 사라지거나 하나의 색상이 다른 것들보다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수프라세티 렌티큘러 솔루션인 레졸루션 어드저스트먼트 (Resolution Adjustment, 렌티큘러 해상도 조절)은 따라서 필요한 픽셀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 각 렌즈가 동일한 수의 픽셀을 갖게 한다. 제조사가 필름이 75렌즈 선수를 갖기를 원하지만 정확하게 75.34가 측정되면 수프라세티는 그에 따라 해상도를 조절하고 자동으로 워크플로우에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저장한다.

“하이델베르그 프리넥 렌티큘러 워크플로로 인쇄사는 생산의 신뢰도에 있어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하이델베르그의 입장이다. 고객들은 수고스러운 테스트 작업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고 프리프레스에서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고품질의 최종 인쇄물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객에게 특별한 제품을 제공하기 원하는 이 분야에 초보자뿐 아니라 숙련된 렌티큘러 전문가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준다. 프리넥 패키지는 확실히 어떤 사전 지식을 갖춘 초심자의 수고스러움을 줄여주지만 과거에 렌티큘러 인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이델베르그측의 설명이다. ◇



신도리코, A4 프린터 및 복합기 4종 출시 친환경 · 비용 · 시간 · 공간절약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지난 6월 8일 A4 출력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고속 흑백 프린터 2종, 초소형 컬러 프린터 / 복합기 2종 등 총 4종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A4 사업 강화를 발표한 후에 이어진 신제품 출시로 기업용 출력기기의 A4 라인업을 풀 기동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군은 친환경(save earth), 유지비용 절약(save money), 업무시간 절약(save time), 사무공간 절감(save space)의 4S 출력기를 지향하고 있다. 양면출력을 기본으로 지원하여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토너 및 드럼 분리형을 채택, 환경물질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유지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절전 및 저소음 설계와 초소형 디자인도 업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real 1200dpi의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기본 장착 되었다. OP패널에 한글 및 다국적 언어를 적용할 수 있다.

김용선 신도리코 마케팅 본부장은 “지난 2월 50매급 출력기를 출시한 데 이어 동일 디자인으로 4종을 출시하게 되면서 저속부터 고속까지, 프린터부터 고사양 솔루션 복합기까지 모두 갖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 A4 시장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강화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P4005시리즈, 분당 40매 흑백 고속 프린터

LP 4005dn / LP 4005dnH는 분당 속도 40매의 흑백 고속 프린터다. 첫장 출력속도가 6.5초로 매우 짧고, network, USB, Parallel, 무선랜까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월 최대 8만매까지 출력 가능한 튼튼한 내구성으로 5인 이상의 소호부터 출력량이 많은 중대형 오피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CL2500, 흑백 및 컬러도 분당 25매 출력

CL 2500은 흑백과 컬러 모두 분당 25매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다. 높이가 30cm이하로 설계된 초소형 제품이면서 4800 color quality의 고해상도를 실현한다. 최대 640MB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으며 프린터 전면에 USB 포트가 있어 PC없이도 바로 출력 가능하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OP패널을 구성한 것이 장점이다. MF C2250은 프린터 CL2500에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추가한 복합기로, 자동원고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양면 복사, 양면 스캔을 할 수 있고 팩스가 컬러송신 뿐 아니라 컬러수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

